

한·미·일 3국 기업들의 전략적 인터넷 활용수준 분석

서영호·지훈준/경희대학교 경영학부

Abstract

최근 인터넷의 비약적 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파라다임 중의 하나로 월드 와이드 웹을 들 수 있다. 웹은 각양각색의 온라인 컨텐츠와 정보 서비스를 빠르면서도 경제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통합하는 전세계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이다. 전세계 기업들은 최근 수 년 동안에 자사의 웹 사이트 구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왜냐하면 웹을 통한 비즈니스는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수단으로 보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웹 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기업의 성과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킨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21세기 이후 인터넷은 지금의 전화와 같은 통신수단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은 인터넷을 이제 단순한 홍보수단이 아닌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요인으로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3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웹 사용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들이 웹사이트에 실고 있는 정보 수준을 단계별로 분류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모델은 웹 사이트를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인 정보전달단계에서 한국(94.9%)은 미국(96.9%), 일본(95.1%)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단계인 정보 교류단계에서 미국 86.7% 일본 70.6%에 비해 우리나라는 다소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2단계를 조사한 결과 정보를 배치형식이나 온라인형식으로 서비스하는 웹 사이트가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웹의 특징인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매력을 느끼고 웹을 사용하게 되는 장점을 유지한다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볼 수 있다. 3단계(전자상거래 단계) 및 4단계(기업프로세스혁신)는 아직 전체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사기업 중 가장 많은 수의 상거래 사이트는 미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주로 웹 사이트에서 실시간의 형태로 온라인 주문을 하고 있거나 전자우편을 사용하여 배치형태로 주문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발표희망분야 : 정보기술연구회 세션 (인터넷 응용)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1번지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정보센터 지훈준

전 화 : 02-961-0508, 019-337-0323

FAX : 02-967-0788

E-mail : sept14@hanmail.net